

# 2004학년도 교육과정개편안 확정

## 일부 단과대 전공이수학점 확대 등 ... 전공교육 강화 중점

내년부터 일부 단과대 신입생 전공이수학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은 전공교육과정의 경우 일부 단과대가 학과제로 전환하고, 교양교육과정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돼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부봉(국어국문학) 교무처장은 "교육심화라는 큰 틀에서 개편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해설보도) >전공교육과정=전공교육 심화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부터 학과제로 전환하는 문과대·이과대(공과대와 정산대는 공학교육인증제 시행에 따라 제외)와 현재 학과별로 모집하는 예술대 등에 창작학과를 대상으로 개편된다.

개편 내용은 △학과별 전공과목 개설학점=최대 80학점에서 93학점으로 확대 △단일전공이수학

점=54학점에서 60학점으로 확대이다. 또한 학과별로 한 학기에 1학년 전공과목을 한 강좌 이상 개설해 1학년과정부터 체계적인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수전공이수학점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기회보장이라는 기존 취지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교양교육과정=교양교육 역시 전공교육 강화와 다양한 선택 기회 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개편된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교양최대 이수학점=52학점에서 47학점(공과대와 정산대 제외) △교양선택제6영역의 과목별 학점=3학점에서 2학점 △제6영역의 최대이수학점=4개과목 12학점에서 5개과목 10학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불교생태학을 특성화한다는

<표>

	개편 전	개편 후
학과별 전공개설 기준학점	최대 80학점	최대 93학점
단일전공 이수학점	최소 54학점	최소 60학점
교양최대 이수학점	52학점	47학점
교양 제6영역 과목별 학점	3학점	2학점

취지에 따라 불교생태학 관련 교과목을 제6영역에 개설하며, 고전·학생회요구 교과목도 신규 개설된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 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6영역의 학점을 줄인 대신 수강가능 과목 수를 늘려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간제 개설되거나 강좌수가 1개인 교양교과목이 2회 연속 또는 통산 3회 폐강될 경우 해당교과를 폐쇄하며, 공학교육인

증 관련 기본소양과목의 이수학점을 15학점에서 12학점으로, 공과대와 정산대의 교양필수 이수학점을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하향 조정해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무처는 이번 개편안을 각 단과대에 통보했으며 각 단과대는 오는 18일까지 교과목 신설·폐설여부 등에 대한 표준교과과정 개편안을 교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 재정 투명화 통한 신뢰 기반해야

## 특성화 살린 프로그램·활발한 홍보 필요

###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대안

최근 '건학 100주년, 100만등달기 운동'을 시작으로 발전기금 모금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본교는 지난해 불교병원 개원지연으로 한동안 모금이 중단됐으나 새로운 모금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학 100주년 100만등달기 운동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이 발전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타 대학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가 발행한 '발전기금 모금 실무적 전략'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게 기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와 관련해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시행하게 될 모금은 건학 100주년의 틀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작된 100만등 달기 행사가 그 일환으로 불교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건학 100주년 D-1000일' 행사에서 조성된 발전기금 결과 불교계 모금이 전체 23.3%를 차지한 반면 기업 및 일반인의 경우 9.8%에 머물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불교병원 개원지연으로 발전기금이 갑자기 줄어들었던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건학 100주년이 2년여 남은 만큼 장기적인 홍보계획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본교는 불교방송

과 사찰 홍보, AIDS 등을 통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으나 기부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해 황주환 발전기금팀장은 "인원 부족으로 외부 유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부자 관리가 △학교 소식지, 감사편지 보내기 △동국 VIP카드 발급을 통한 부속병원 이용혜택 뿐 기부 이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부족하다.

얼마 전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건학 100주년이 될 때까지 발전기금 1천억 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내·외 구성들에게 재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통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학과별 장학기금 지원 계획

## 학교에 기금관리 위탁시 원금의 20% 지원

학생처(처장=이관제·통계학)가 각 학과의 학과별 장학기금 관리를 학교에 이관할 경우 모금액의 20%를 학교측이 추가로 지원하는 '학과별 후배사랑 장학기금 모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각 학과별 장학기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각 학과에서 관리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절감하고, 개인이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1단계(2003.9~2003.12)=홍보, 학교로 기금 이관 △2단계(2004.1~2004.12)=학과 신청에 따라 신규모금활동 지원, 전산망 개발 △3단계(2005.1~2006.5)=전체 대학으로 확대 진행되며, 학과 뿐 아니라 동문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학교측에 이관할 수 있다.

학교측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이번 주부터 단과대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연말 결과 보고를 하고 단과대별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15일 한라대와 첫 경기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총 27개팀이 출전해 3개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는 15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한라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한편, 토너먼트로 진행된 '전국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야구부는 지난달 25일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실례임'을 팝니다 ...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남희·식4)가 오는 3일까지 '귀한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장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중앙도서관 앞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동국관 3층 로비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신임 교수회장 염준근 선출

## 부회장, 박정극 교수 ... 교수회 보궐선거 진행

제8대 교수회장으로 염준근(통계학) 교수가 지난 26일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보도) 이번 보궐선거는 박종훈(윤리문화) 전 교수회장이 지난달 일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것이며,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으로는 박정극(화학) 교수가 선출됐다. 이밖에 총무를 비롯한

임원진은 이번 주 안으로 내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승진최저요구평점과 필수연구요구업적 하향 조정 △계열별 승진최저요구점수와 학술지 게재점수 차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업적평가 기준안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 연구수주 장려금제도 변경

## 간접비 20% 일괄 지급 ... 연구활성화 기대

연구처(처장=여인형·화학)가 오는 1일부터 연구수주 장려금제도를 변경한다.

연구수주 장려금은 그동안 연구과제 수주 후 연구비 총액의 8%를 학교에 간접비로 납부하고 간접비가 5백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 그 중 20%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는 5백만원의 제한 없이 납부한 간접비 중 20%를 매년 5월과 11월에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연구금액이 적은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며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곡스님 법인사무부처장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한 성곡스님이 지난달 25일 동국학원 법인사무부처장으로 부임했다.

법인사무부처장직은 지난 3월 인사개편 이후 약 6개월 동안 공석이였다.

### 동원학술상 논문 접수 오는 16일까지 교학과

대학원·대학원 총학생회가 '제5회 동원 학술상' 논문을 오는 16일까지 교학과에서 접수한다.

제출 논문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으로 △교내의 공인된 학회 논문을 통해 발표된 것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논문 △공동연구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제출논문의 연구업적누계가 70%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00%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1차 심사 후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일정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할 경우 투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교학과는 대학원 자유연구과제를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는 학문분야간 협동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될 경우 1차로 연구비의 60%가 지원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 알림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신문은 9월 22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보리소

제약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선한 일은 받들어 실천하라/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덕전등록'이 전하는 이 일화는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와 도림선사(道林禪師)의 대화에서 유래한 칠불통계(七佛通戒)이다.

백거이가 "어떤 것이 불법(佛法)이니까?"라고 묻자, 도림선사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대답했다. 백거이가 세 살 짜리 아이도 알겠다고 빈정대듯 말하자, 도림선사가 "세 살 짜리 아이도 말할 수 있으나, 팔십 된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일렀다.

칠불통계는 석가모니 이전 과거칠불(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이 한결같이 당부한 계로, 곧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를 말한다.

이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자비와 지혜이다.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이며,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믿음을 줄 수 있는 지혜의 발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위치자들이 싸움박질로 날을 지새고 있다. 보수와 개혁의 갈등이 해방 직후 좌우익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들 제 잘났다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악을 쓰는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가 불신지옥에 들어온 듯 싶다.

작금의 혼돈시대,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몸부

림일 수 있다. 화합은 조화가 아닌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 암투처럼 사대질만 하는 어리석음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뿐이다. 우리의 공업(共業)이라는 진실 앞에 남을 먼저 이해하는 자비와 지혜의 싹을 틔웠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자신과 사회와 민족과 인류가 상생하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춘생 주간불교 편집부장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 4년의 대학생할, 남들과 똑같이 보내시렵니까?

**동대신문사에서 45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열정 넘치는 새내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9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4면 한총련 합법화 거리토론회**

지난 29일 본사 주최 '한총련 합법화 왜 늦어지는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광장으로 나온 한총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본다.

**3면 본교 국고보조금 수혜 현황**

지난해부터 감사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본교 국고보조금 수혜 현황을 살펴본다.

**8면 누드, 빨간옷 벗고 대중속으로**

인식변화에 따른 누드 대중화 바람을 살펴본다.



본교 국고보조금 수혜 실태

특성화 등 차등지원사업 노려야

학내 의견수렴 통한 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국고보조금은 재단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한 본교에서 등록금 의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그친다.

▲특성화기반조성사업비=정부가 모든 대학의 학생인원, 예산 등 학교규모와 특성화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반지원사업이다.

본교의 경우 지난 2001학년도 13억 여 원, 2002학년도는 12억 여 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3학년도는 상반기에 약 5억 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지급이 아직 안됐지만 올해 역시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해마다 지원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본교 자체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부방침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소재대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교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BK21과 특성

화 우수대학선정 등이 이에 속한다.

▲BK21=현재 불교문화사상가연구단과 대안영화이론 개발팀만이 BK21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BK21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약 4억원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BK21지원이 교수들의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교수들의 소극적인 참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에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BK21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BK21 사업팀 선정에서 본교가 1개팀이 선정된 데 반해 선군관대의 경우 16팀, 경희대가 6팀이 선정된 것은, 각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성화 우수대학선정=지난 96년부터 시행돼 온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의 연장선에 있으며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학교 특성화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총 300억 원의 지원금을 30여개 대학에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본교는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에 4번 선정돼 전국대학 중 18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최근 2년 동안 선정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특성화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 건 계획서 제출 한 달 전이었다"는 경영전략실의 한 관계자 말처럼 준비과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들로부터 특성화 방향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공지했지만 마감 열흘 전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형식적이었으며, 확정된 이후에도 지난 1996년 계획한 사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구성들과의 논의 과정이 전무했다.

한편 올해 본교가 일부 단과대를 제외하고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과제로 선발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에 삭감조치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특성화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한 정부정책이 지방대 중심으로 변화에 따라 본교가 국고보조금 수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적극적인 연구참여와 학내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121@dongguk.edu

<표> 2002년 교육부 지원 상위 20개교

Table with 3 columns: 순위, 대 학, 지원총액. Lists top 20 universities and their funding amounts.

교무처장 김무봉 교수 인터뷰

“교과과정 개편 주안점은 교육의 심화”

학과별 이수권장과목 지정유도 ... 전공필수 부재의 한계 보완



2004학년도부터 시행될 교과과정 개편안이 발표됐다. 일부 단과대가 내년도부터 학과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공교육 강화 등

그에 따른 적절한 교과과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번 개편안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무봉(국어국문학) 교무처장을 만나 교과과정 개편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번 교과과정 개편의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 특별하게 획기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부터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라고 강조해왔던 것처럼 개편안의 큰 틀

은 '교육의 심화'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양 교과과정의 경우 일반 기초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형식, 이л테면 학생회 요구 과목이나 고전 관련 과목, 학술진흥재단의 지정 연구 과제 과목 등을 다양하게 개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공기초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설 교과목의 변경·개편도 이뤄질 것이다.

- 전공교육 심화를 위해 그동안 많이 이야기됐었던 전공필수과목이 개편안에 빠져있는데.

=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이나 연계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배가 돼 졸업이 한 학기 이상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전공필수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대신, 각 학과가 자체적으로 이수 권장 지정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이번 전공 관련 개편안은 학과제로 전환할 학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다른 단과대는 변화가 없는가.

= 학부제가 유지되는 단과대는 기존의 전공 교과과정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단과대가 학과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학부·학과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교과과정도 그에 따라 변화할 예정이다. 학부제 시행 단과대가 학과제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개편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사설

‘하나’로 막내린 U대회

11일간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세계로'를 향한 이번 대회는 172개국의 세계 대학생들이 함께 한 평화 염원의 축제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한 통일 염원의 마당이었다. 특히,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경기장안으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동의장하던 개막식 현장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남북의 경기가 진행되던 내내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응원단과 한겨레 남북평화응원단 아리랑의 환상적인 '어울림'도 '하나'가 되는 U대회에 한 몫 톡톡히 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열렸던 세계 대학생마당이나 남북 청년 문화예술행사 등의 각종 문화행사 역시 세계의 벽을 넘고 남북분단의 경계를 넘어서, 평화와 화해의 장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오점'은 있었다. 행사 4일째인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일부 보수단체의 과도한 반박시위가 그랬다. 잔치에 온 손님 앞에서 보란듯이 벌인 그들의 행동을 화합을 위한 축제를 반박·반감정일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이용한 의도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대구 대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박시위 문제였다"고 답한 비율이 81%나 됐을 정도다.

이로 인해 북측에서는 선수단 철수를 고려하기도 해 자칫 반박시위가 평화적인 U대회에 큰 타격을 줬을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무사히 치러졌으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됐든 이번 U대회가 남북이 함께 한 의미있는 축제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대회기간 중에 윤덕홍 교육부장관과 북측 선수단장이 만나 '남북 대학생 체육·교육 교류의 물꼬를 트우자'는 의견을 교환한 점은 앞으로의 남북 교류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 U대회가 담아내려 했던, '하나 되는 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심, 편집인 이상영, 부주관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2003. 3. 17 ~ 2003. 8. 24

발전기금

△1천만원 소프트뱅크이씨 △5백만원6천원 현대의보기 △2백만원 김중진(교직원) △1백만원 노완실(생명과학대학장), 신지현(교직원), 김영민(교직원), 박용태(교직원), 조희성(교직원), 이종용(교직원) △20만원 장승우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4천만원 한국RF △3천만원 정각원 △1천2백77만2천200원 세운대칼 △1천만원 홍기심(총장), 경희상사 △9백74천원 평정대학원생원장 △4백60만원 최인숙(중앙도서관) △3백만원 강남희(신도), △2백40만원 장기원(과대학장) △2백만원 김석용(이간장교과위원장), 김진철(연경정보대학원장), 김태홍(경원대학원장), 민병택(영성정보통신대학원장), 박인규(대학원장), 서윤길(국제정보대학원장), 서형수(대학원), 손현태(여학생실 실장), 이관재(학생처장), 이준호(아카데미장), 이호윤(정보관리실장), 정진택(교육대학원장), 조승환(문화예술대학장), 조양(산업기술경영대학원장), 차수현(경영대학장), 한문호(교직원) △1백50만원 안태승(신도), 이광석(신도) △1백15만6천400원 한보광스님(불교대학원장) △1백10만원 조희성(신도) △1백만원 박무근(신도), 극지경(신도), 권숙희(신도), 권경호(신문), 김광수(신도), 김성진(신도), 김승진(신도), 김재주(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원(신도), 김영애(신도), 김형진(신도), 김윤호(신도), 김경관(신도), 김현태(신도), 김환기(일어일문학과 교수), 남인주(신도), 도선사제비회 도정순(발명사 주지), 묘진스님(선광사), 묘진스님(용화사), 박근스님(동문), 삼근스님(원효사), 안영훈(신도), 연영규(교육원), 이서원(신도), 이석원(신도), 이은우, 이연희(신도), 이호재(신도), 이지하(신도), 이광우(신도), 임성도만희(신도), 장경호(신문), 전미경(신문), 정아스님(부산불교회관 관장), 정영태(신도), 재병규(신도), 조의영(영어영문학과 교수), 조학봉(무학사 주지), 차승원(신도), 차창진(신도), 최향호(장기공학과 교수), 현윤스님(영일안), 홍인보(신도), 홍준영(신문), △7백15만7천7천 ARS인금액 △600원 김호영(신도), 박경순, 박상수(신도), △50만원 김세호(신문), 부원희, 박정희(신도), 여현정, 이은우(신도), 이재우(신도), 이재연(신도), 장종재(신도), 진순남 △402원 장영수 장영자(신도) △302원 김기남, 김무봉(교무처장), 민부원(신도), 박동서, 박진규, 유덕기(대리원장)이영준(법학과 교수), 안희(문과대학장), 이병진 △200만원 불문연구회학회회학기지원금 △250원 박성희(신도) △200원 박은스님(신도), 박진보(신도), 서승원(신도), 신하연(신문), 유정순(신도), 이은우, 임순재(신도), 최수재(신도), 이경진 △200원 유영희(신도) △200원 정기동(신도) △100만원 박성희(신도) △100원 최민호(신도), 고자명, 권영자(신도), 김경문(신문), 김계현(신도), 김효호(신도), 김도영(신도), 김경호(원효사 주지), 김영태(신도), 김우재(신도), 김병재(신도), 김홍준(신문), 문영애(신도), 박기현(신도), 박영호(신문), 박영호, 박영호(신문), 박우순(신도), 박우순(신도), 박우순(신도), 박우순(신문), 서승원(신문), 신성순(신문), 신성순(신문), 연진홍(신문), 원산스님(한림사 주지), 유호노, 윤상규(신문), 이광복(신도), 이옥재(신도), 이영우, 임성기(신문), 정승규, 권덕순(신도), 정지훈, 조난석(신도), 최은우, 최재욱(신도), 안승훈(신문), 한광수(신문), 홍순아(신도), 이병진 △200원 문상환(신도) △200원 장승우 △700원 여우기(신도) △200원 권영희(신문), 김경관(신문), 김성원(신문), 서영근(신도), 이은근(신도), 장혜련(신문) △200원 교육자(신문), 김경원(신문), 김만우, 김승진(신도), 김은재(신도), 문정순(신도), 박대성(신도), 박영민(신도), 박복(신문), 박성태(신문), 배은실(신문), 박지원(신문), 서정호(신도), 송인호(신도), 송재홍(신문), 수필안, 우동근(신문), 유현우(신도), 율곡사, 이은주(신도), 이정호(신문), 이혁일(신문), 이형관(신도), 조도순, 조장영, 주혜련(학부오), 진승원(신문), 한진순(신도), 홍영호 △420원 김태일(무학사), 박순애, 안순남(신도), 이철은(신문) △300원 김경우, 김재연(신문), 박우순(신도), 부영수님(부영사), 성덕스님, 성수스님(선무인 주지), 송병선(신문), 수경사, 유준호(신도), 이민이(신문), 이은우(신도), 이은주, 장아, 최영민(신도), 한상복(신도), 현진스님(법학사 주지) △1만원 경경자(신도), 강형재, 박성진(신도), 김경원(신문), 김진원(신도), 나혜문, 박상순(신도), 박정민(신문), 박진신(신도), 삼근스님(성광사 주지), 임두서(신도), 오재영(신문), 옥태일(신문), 이영희, 이창

장학기금

△8천만원 동국대학교의사회(신문) △1천만원 박정국(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신현수(생명,화학공학과 명예교수), 현상우(신문) △6백40만원 예순 △2백만원 한국교통총합개발 △3백만원 조석규(신문), 장홍기, 박숙향(신문) △2백50만원 KOSSES △2백만원 포용, 김진철(경영대학원), 의과대학장, 이병진 △1백50만원 김진규 △1백만원 이동홍(생명공학과 교수), 김형진(경영대학원), 박영욱(신문), 대영중앙건설공사, 강도권, 박영자, 권태근(신문), 코요동종합 △50만원 NI외국어학원

특정목적기금

△2천4백만원 이희희(신문) △1천500만원 김성환(대학원) △1천500원326원 정우정(신문) △1천4백만원 김길섭(신문), 김병진(대학원), 남민기(신문), 손환수(신문), 안준희(신문), 이상봉(신문), 최명희(신문) △1천만원 김성욱(신문), 김소희(신문), 김향희(신문), 김재철(신문), 김중구(대학원), 김주경(신문), 김현태(불교대학원), 안병태(신문), 유기환(신문), 이연(신문), 이연도(대학원), 이형재(신문), 임익실, 정호기(신문), 정영규(대학원) △900만원 김경준(신문), 김성태(대학원), 김원철(신문), 문현기(신문), 박순재(신문), 서은경(신문), 이구형(신문), 이은정(신문), 정경태(신문), 정영윤(신문), 황영근(신문) △8백80만원 교수자문서회 △6백1426원 김성희 △3백만원 김동원(교무처장), 신재계, 윤석선(도서관장), 이명백(법정대학장) △2백만원 김경준(교과목심사학과 교수), 김진재(국어학과 교수), 문영태(경영학과 교수), 박순홍(자연과학대학장), 배이윤(기초과학), 최영진(인문과학대학장), KUI기회 △1백12만2천800원 최창선(간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장) △1백만원 권동철(신문), 김광진(대학원), 김희준(신문), 노영민(대학원), 명성스님(문묘사), 문순호(신문), 안종현(신문), 오성진(신문), 윤병국(신문), 이계영(컴퓨터학과 교수), 이은주(신문), 이상근(신문), 이영태(신문), 율치우(신문), 장인재(신문), 장주환(신문), 정철(과대학 교수), 주승근(신문), 최보남(부총장), 최홍자(경영경영학과 교수), 안문순(신문), 황민우(신문) △800만원 여성서(경영학과 교수)

단위기금

△1천만원 관대경(경영경영학과 교수), 김보환(경영경영학과 교수), 이상원(경영경영학과 교수), 이문근(경영경영학과 교수), 이흥우(경영경영학과 교수), 임태연(경영경영학과 교수) △9백40만원 김홍우(예술대학장)

동국사랑저금기금

△5만4천810원 김경태(교직원) △4만2천350원 이경식(교직원) △3만7천140원 조봉문(교직원) △3만1천900원 오수민(교직원) △1만9천70원 조봉묵(신문) △1만4천280원 최광재(교직원) △9백60원 문희애(예술대학원) △9천원 김홍모(교직원)

수증물품

△1천7백만원 비문조사 △4백74만6천800원 에이저림

100만동 달기 참여안내
■ 참여방법: 동국대(여름) 중: 동국대(여름)
■ 후원금: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라
■ 후원금: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라
■ 후원금: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라

2003 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 1. 신청 자격: 재학생
2. 신청 기 간: 2003. 9. 4(목) ~ 9. 5(금)
3. 봉사활동 기간: 2003. 9. 22(월) ~ 2003. 11. 22(토)
4. 봉사활동 방법: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5. 봉사활동 대상기간: 육수종합사회복지관 외 150여개 기관
6. 봉사활동 신청 장소: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 3층)
7.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및 성적처리 방법
8.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 (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교육여건 온라인 설문조사 및 경품행사

-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재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대학의 교육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 기간: 2003. 9. 15(월)까지
2. 설문내용
가. 학내내
나. 교육과정 및 학업이수
다. 복지 및 행정서비스
라. 교육 및 지원시설
마. 대학발전 정책
3. 참여방법: 본교 홈페이지 우측하단 교육여건설문 클릭
4. 경품 행사
가. 경품 지급 대상자: 교육여건설문 온라인 조사 기간 중 모든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나. 경품 당첨자 선발 방법 및 시시내역
(1) 명진상: MP3 1개씩 3명
(2) 해화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2개씩 101명
(3) 선반방법: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각각 1,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 2500번째 응답한 학생
(4) 동국상: 학교 홍보용 고급 우산 10명
(5) 선반방법: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
다. 당첨자 추첨 및 발표
(1) 당첨자 추첨
- 추첨일: 2003. 9. 29(월) 예정
- 추첨위원: 교무처장, 학사지원실장 등
(2) 당첨자 발표
- 발표일: 2003. 10. 6(월) 이전 예정
- 발표장소: 학교 홈페이지

동국참사람봉사단 교무처



# 한총련! 내 말 좀 들어봐

되는 현실이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 스트라이커부대시위를 보고

김현정(사과대1, 이하 김)=한총련 합법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한총련도 기다리고 참으면서 절제된 방법을 쓸 필요도 있다.

이번 스트라이커부대시위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부대내 진입까지 해야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그러한 행동 때문에 위험한 세력이라는 오해만 사지 않았나.

주=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언론의 시선이 문제인 때가 많다. 언론은 한총련 학생들이 단순히 '강감처에 올라갔다'는 자체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한 보도는 없다.

박=언론도 문제이지만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 즉 기성사회 구조적 책임도 있다.

사실 유럽의 평화시위에 비하면 스트라이커부대시위 자체는 평화적이었다. 다만 기존의 가치를 '깨려버린' 형식과 의식의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한총련에게 남겨진 과제는

주=형식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합법과 불법이 판

가분난다. 예를 들어 한보비리와 IMF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던 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가두시위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가두시위라도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 문제는 형식 자체에 있지 않다.

김=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한총련도 변화해야 한다.

먼저 운동권적 말투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한다. 예를 들어 '투쟁'이라는 단어는 일부 운동권 이외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거부감이 느껴진다.

박=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북의 주장 또한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말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총련 내부에서 원칙을 버리느니 차라리 합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인정받고자 하는 원칙을 위해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주=한총련의 주장은 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식적 유사성으로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북에 대해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 오해가 자주 생긴다고 본다.

또한 원칙과 합법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중운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합법화의 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법화다. 학생운동의 대중화, 사회적 합법화를 위해서라도 이적의 골때는 벗겨줘야 한다. 그것이 선결조건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박순성(북한학) 교수



주진원(국교4, 3년차 정치수배자)



김현정(사과대1)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이 5.18시위,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 등을 계기로 논란이 계속되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9일 필즈도에서 '한총련 합법화, 왜 늦어지는가'를 주제로 거리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총련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을 통해, 한총련합법화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편집자

지난달 29일 오후, 필즈도에서 열린 거리토론회의 분위기는 토론의 '치열함' 이라기보다 '기다림' 이었다.

때로 발길을 멈추는 이들도 있지만 방청석으로 걸어나와 앉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몇 개의 빈 방청석에는 햇볕만 쬐여지고 있었다.

허전하기는 불상 앞에 놓인 패널석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패널부터 어쩔 수 없이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난 패널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달랑 두 명의 패널만이 자리를 지켰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날 토론에 열광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패널토론 후 진행한 '방청객 자유발언대'는 우리에게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연스럽게 방청객과 패널의 대화가 이뤄져 교직원들의 격려발언부터 한총련의 운동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건물 바깥으로 첫 나들이를 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는 '시선'만을 남기고 간 이들과도 모두 방청객이

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향한 수많은 무관심한, 혹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또한 중요한 '발언'들이었다.

## ■ 패널토론

### 한총련 합법화 논의의 의미

박순성(북한학과 교수, 이하 박)=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폐 문제가 우리사회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사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제는 한총련의 이념도 일정정도 허용해야 한다.

주진원(국교4, 이하 주)=한총련 합법화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한총련의 주장이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학생운동의 대중화 문제이다. 학생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 몇 백 명씩 수배

## ■ 자유발언

패널들의 토론이 일단락된 후 '자유 발언대' 시간을 통해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장은(학생복지실 학생과장)=수배자들의 자진출두 문제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장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한총련이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 합법화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다.

김동국(불교대 학생회장 선4, 이하 김)=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의 보도 때문이 아니라더라도 브라운관 속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접한 사람들이 한총련에 심정적 동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주진원=많은 언론이 사건의 발생배경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일부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한총련은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두 여학생의 문제는 1년 이상 추모대회 등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반면 서해교전으로 희생된 국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인가.

(대답)주=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논의해왔다. 북방한

계선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쪽은 남한의 어선들이다. 또한 그동안 '서해'를 공동어로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박시동(한국대학신문과장 기자 법3)=한총련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지금 문제삼아야 할 것은 '한총련 합법화' 자체가 아니다. 학생운동 진영의 운동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이제 학생들이 나서서 자주·민주를 외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바라는 것은 중도문제나 재단전입금 환속 방안 등 자신들과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자주·민주·통일과 같은 학생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얘기를 꼭 한총련이 외쳐야 할까.

(대답)유영빈(총학생회장 경영4, 이하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내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예를 들면 신숙 도서관도 98년부터 2년간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설립했다.

최창민(사회4)=한총련을 개혁, 진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는 한총련의 주장이 오히려 '보수'로 일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진정한 보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총련이 특수한 성격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보에 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한이화(정외3)=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총련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없다. 대부분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난 이야기인 민주, 자주 등을 외치는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70년대와 비교해 우리 사회에서 달라진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외침은 필요하다.

이번 스트라이커 부대시위가 내부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즉 '파가 갈렸다'는 것이다. 한총련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떠한지 이를 더욱 투명화 시킬 수는 없는가?

(대답)유=파가 갈렸다'는 것은 일부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한총련 내부의 논의과정이 경직돼 있다는 것은 일면 사실이다. 참여·의견 개진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지금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설>  
dbswls@dongguk.edu



▷왼쪽부터 정은 학생과장, 김동국 군, 최창민 군, 한이화 양.

## 네티즌 한총련 민심

# 잇따른 시위논란에 '네티심'도 흔들

요즘 네티즌들은 한총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라인의 자유토론계시판에서는 '인명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네티즌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언론사 및 진보·보수 단체의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최근 한총련에 관련된 글의 대부분은 지난달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시위에 관한 것이다. 의견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우선 '무분별한 불법·과격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글쓴이:나그네)하다는 부정적 견해, "민족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시위"(글쓴이:대학생)라는 긍정적 견해, 그리고 "시위를 해도 불법시위는 말아야 할 것"(글쓴이:윤형진)이며 "반정에는 동감하지만 현 정세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글쓴이:mskim)하다는 시위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는 지난 6개월간 게시판을 달궜던 한총련 합법화 논란의 흐름과 비슷하다.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의견 또한 대체로 △'빨갱이', '친북세력'

이기 때문에 절대반대 △'애국단체'라며 적극지지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중의 신뢰, 민중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는 한 한총련 합법화의 길은 요원할 것"(글쓴이:이정선)이며 "학생들이 학생회에 등을 돌림에 따라 한총련의 '대표성'이 사라졌다"(글쓴이:HAN)는 등 원칙적으로는 합법화를 지지하면서도 한총련에 대해 다양하게 비판하는 글은 더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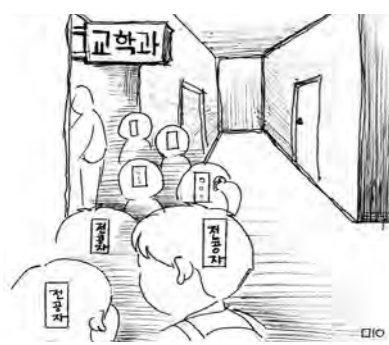
이러한 최근 '네티즌 민심'의 흐름은 몇 개월 전과 사뭇 다르다.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 무르익던 4~5월에는 '보이지 않는 창살' 등 합법화 노력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서 네티즌의 긍정적인 여론이 활성화 됐다.

그러나 이후 한총련의 5.18 국립묘지 참배 시위, 스트라이커부대시위 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합법화 여론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민)  
mh705@dongguk.edu

## 동약문

### 비교학문 '극과 극'



"이 수업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제발 수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수강신청기간 경영대 교과과, 일부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이 추가인원승원을 애원하고 있다. 해당학년·학과생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타전공 학생까지 수업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정이 절박한 학생들은 추가로 수강인원에 포함됐지만 강의당 수강정정인원이 20%이상 초과해 강의여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단 경영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방송학과와 광고학과 등 일부 인기학과에서는 매학기 수강정정기간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반면, 기초학문으로 여겨지는 일부학과의 강의실은 이와 대조적이다.

전공수업의 학생수가 인기학과 조별인원인 10명 안팎이거나 심지어 인원이 부족해 폐강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대체로 경영학 전공자를 우대하잖아요."

"매체·이미지산업이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신방과나 광고학과가 인기잖아요."  
응용학문으로의 편중도 이에 따른

기초학문위기는 사회문제가 되지 오래다. 그러나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학생 탓만 할 수는 없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기업 역시 마케팅을 무엇보다 중시해 경영학 등의 전공자를 우대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정책마저 이를 뒷받침하고 국고지원금은 기초학문보다 응용학문에 집중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경원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은 기초학과를 폐과하는 등의 학과구조조정을 단행해 학생·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본교는 아직 이런 상황까지 처하지는 않았지만 기초학문위기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다.

대형강의실에서 마이크 없는 수업을 진행하기 힘든 모습, 인원이 적어 폐강위기에 처한 기초학문 수업. 개강 첫 주, 우리 대학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최성민 기자  
qwertwq@dongguk.edu

## 이주의 시사키워드

# DDA를 아십니까

'다시 무역협상의 링에 오르다'

오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는 거대한 '권투경기'가 열린다. 회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권투와 비슷하여,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다자 간 무역협상'이 그 것이다.

다자 간 무역협상이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국가들이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벌이는 협상. 약 10년 간 계속돼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무역협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이번 회의는 이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는 자리다. 선거로 따진다면 '틀리팅'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각 국의 입장조율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벽'을 낮추는 문제로 초반부터 대립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지난 14일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협상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도하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자국 산업보호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도 참여민주주의로

## 서평



대중과 과학기술  
도로서 벨킨 외 저  
김명진 편역  
인경 펴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과학기술과 대중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련의 TV 토론회나 관련 기관의 홍보책자에서 나타나는 전문가들의 상황인식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나 관료들은 지역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핵 폐기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꼽는다. 심지어 일부 관료들은 지역주민들이 핵폐기장을 핵폭탄과 동일시 여긴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까. 간단히 말하면 대중이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것은 무지와 오해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인식은 대중이 과학기술에 무지하다는 '결핍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대중은 과학기술에 무지해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지식을 공급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로 인식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향식의 '과학대중화'라는 접근이 이런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결핍 모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백탁 모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은 대중들의 과학이해가 그들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학과 대중 모두를 단일한 실체로 상징하는 것 그리고 과학자식의 공급이 늘면 과학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대중과 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나들면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글쓰기를 하고 있는 김명진씨가 편역한 '대중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과 대중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무참히 깨부순다. 때에 따라서 과학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자연세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지도 않으며 과학자 사회가 언제나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신화'를 도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뒤이어 대중의 과학이해에 관한 모델들을 개괄한 후 그 함의까지 살펴보고 있다.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 논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편역자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오히려 이런 논쟁은 정상적인 것이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편역자가 꼽은 긍정적 역할은 논쟁 공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비공식적인 기술의 영향에 대한 평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책의 끝 부분도 한국사회에서는 꽤나 생소하고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영역 또한 참여민주주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개념을 상세히 정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뿐만 아니라 '지식생산의 민주화'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대중과 과학기술의 상호관계에

과학이 때로 '과학적'이지 않으며, 과학자 사회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며 과학 기술에 대한 '신화'를 도발적으로 비판

대해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구성돼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과학기술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혼란과 애매함을 느끼는 독자라면 한번쯤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김 병 수  
국민대 과학기술학 강사

유 혼 우 (철학)교수의

## 사상가 이야기



### '엘랑비탈'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Henri Bergson, 1859-1914)

"모든 생명체, 인간의 삶은 진화한다. 이 진화는 내적 충동적인 엘랑비탈(élan vital), 곧 생명의 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창조적 진화이다."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은 그의 이전에도 비슷한 학설이 없었고, 그의 후에도 계승하는 철학자가 별로 없는, 그럼에도 전 세계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철학자이다.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평가받는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1907)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1932)은 몇 종류의 우리말 번역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베르그송의 관심은 '지속'과 '생명' 개념이었다. 본래 생물학에서 출발했던 그는 과학이 사용했던 시간개념, 곧 시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간화 한 시간개념을 거부하고, 특히 기계론적인 결정론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생명의 창조적 진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목적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진화를 거듭해 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진화 과정의 전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키는 '생명의 약동'(élan vital)의 흐름이다.

분석화·공간화·개념화하여 사물을 고정적·불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과학적인 삶의 방법은 목적을 성취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물의 본질적 실재에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는 공감을 통해 사물의 중심부까지 이르는 총체적·직접적인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지속과 끊임없는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생명의 본질은 '순수 지속'이다.

베르그송은 또 닫혀진 사회와 열려진 사회를 문제삼는다. 모든 체제와 반창조성과 악은 폐쇄적이며 닫혀진 사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열려진 사회는 언제나 새로운 도덕과 가치를 창조해나갈 수 있고, 그 사회적 진취성과 창조성이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삶을 추진시켜 준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교리나 형식에 얽매어 정적(靜的)인 것이 될 때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모든 종교가 동적인 힘을 가질 때 그 사회를 발전시키게 된다.

반(反)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 무렵, 예외의 기회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미래에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 틈에 남아 있고 싶다"면서 유대인 등록을 하였던 베르그송의 삶에서 '순수 지속'과 '열린 사회'에 대한 그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수동정

△한태식(선학)=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학술발표회 참석 위해 일본 방문.

△박정국(생명화학공학)=일본 바이오 국제포럼 참가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방문.

△손재현(체육교육)=James 국제민속축제 초청 공연 참가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방문.

△유광진(정치외교학)=지난 7월 5일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교육홍보분과 위원장 겸 운영위원회 임명.

## 학술단신

###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제27차 모의유엔총회

대학생들의 가상 유엔체제 학회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이 오는 19일 2시 '난민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력증진'이라는 의제로 한국외대 국제관 애경홀에서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한다.

모의유엔총회는 실제로 열리는 UN 총회를 본 따 1959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초의 외국인 학술행사. 27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국외대와 본교를 포함한 7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해 난민에 관한 제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생이 각 국가 대표단으로서 국가의 입장을 표명, 외교와 협상을 통해 세계 기구가 복잡다단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성대 동아시아학술원 석학 초청 집중강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오늘(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미국 동아시아학계의 석학들을 초청, 총 12회에 걸친 집중강좌를 진행한다.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강좌일정과 주제는 △엘리자베스 페리(하버드대)=1일(월) 중국 정치사 연구방법론의 변화, 2일(화) 현대 중국의 대중운동 회고와 전망 △신기욱(스탠퍼드대)=4일(목) 미국 사회학계에서의 한국학 연구, 5일(금)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켄트 구이(워싱턴대)=15일(월) 청나라의 영토 창출, 16일(화) 청 시대사의 전환점 △제임스 팔레(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장)=17일(수) 서구에서의 한국사 연구, 18일(목) 한국사에 있어서 대외관계 △피터 듀스(스탠퍼드대)=23일(화) 미 역사학계의 일본제국주의 연구, 24일(수) 근대 일본의 도시발전 △부르스 커밍스(시카고대)=26일(금) 한국전쟁은 왜 내전인가, 27일(토) 한국의 시민사회 출현이다.

## 특별기고

# 이라크 석유의 전략적 가치와 전망

## 미국 등 이권다툼 치열 ... 이라크 재건·세계경제에 영향미쳐

이라크 전쟁과 미국 패권의 충격 요인으로 이미 취약해진 세계경제는 결정적인 일격을 당했다. 전쟁 이후에 아랍의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불안감이 생기기면서 이라크 석유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석유산업이 고용창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석유 산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세계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전후계획 만큼이나 예상을 빚나갔다.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에도 점차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고,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라크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미국에 대한 보복 테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석유 산업의 활동은 축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여파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이라크 석유산업의 장래는 어떠한가.

지난 3월, 전쟁을 통해 미국은 중동지역의 석유패권을 장악했다.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중해 카스피해 인도양 사이의 송유관을 차지할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북부 최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와 터키의 케

이한항을 잇는 95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에 원유가 흐른 것은 미국이 주요 전투 종료를 선언한 지 석달 보름이나 지난 8월 13일이었다. 현재 이라크의 원유생산 및 수출량이 정확하게 발표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6월 중순까지 150만 배럴을 생산하겠다는 애초 목표와 달리, 이후 7월 말로 목표시가 늦춰졌다. 이제는 연말까지 20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분간 일일 생산량이 90만 배럴 이하가 될 것이다.

석유가 이라크 재건설의 경제적 원천이 될 수 있음에도 내외 부적인 석유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인해 이라크 재건은 쉽지 않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 하에서 외국계 회사와의 석유수출계약은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라크 석유수출대금이 이라크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석유판매계약 감독기구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없이는 이라크 석유개발은 오히려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엑슨이나 할리버튼 같은 미국 기업과의 계약은 결코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라크 석유는 전체적인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며, 국제유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급변하게 될 것이다.

김 중 관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연구교수

소나기

병영문화 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군대는 놀러가는 곳이 아니다.  
 △안그래도 요즘 군대 너무 널널해서 말성인데, 앞으로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활개치는 날이 오겠군.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는 있어도 군대 안에 민주주의는 없다.  
 △빨리 제대해서 다들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양치는 관리해도 음식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정성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군대는 수직적 언어 명령 체제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구성원간의 수평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민주화는 근본적으로 군대체제와 모순된다. 계속 민주화가 이어진다면 군대 내 위계질서의 붕괴로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절대로 비슷한 나이끼리 서로 힘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계급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활의 규칙을 지켜갈 수 있다.  
 △장군·이제서, 대령·삼촌, 소령·형 이라 부르게 해주세요.  
 △병장 : 불격양으로! 이등병 : 먼저 가지지요. 말이 되나요?  
 △사회변화와 군대변화는 그 맥을 같이하지만, 나름의 특수성을 배제한 부화뇌동식의 작위적 변화는 지양해야 할 것.  
 △가혹행위의 적발이 어려워 시행한 안일한 조치이다.  
 △분명 사고가 터질 것이다.  
 △군기 해이 → 안전사고 발생 → 가족의 슬픔  
 △그래도 군대는 맛아야 맛이다.  
 △군대갈 때 작아하고 가면 될 것 같다.  
 △불가능하다. 말이 되냐.  
 △자기가 당한 만큼 새로 들어오는 이등병들한테 풀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관없다. 난 공이 갈 거다.  
 △내부적으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

논단

고은광순  
호주제페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여성의 '씨앗'도 인정하라

여성은 대 있는 도구 아니다

호주제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주제 폐지 주장이 극소수의 이혼녀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반대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하듯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호주제의 골자인 부가입적(夫家入籍)과 부가입적(父家入籍)은 부부를 차별하고 부모를 차별하며, 아들우선의 승계순서는 아들딸을 차별하는 등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다각

도로 차별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사람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라는 말이다. 결혼은 성숙한 남녀가 양가로부터 독립하여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호주제도는 여성을 남성에게, 혹은 남성의 아버지에게 종속시키는 부가입적을 강제하고, 호주승계순서도 아들, 손자, 손녀, 딸의 후손위에 품으로써 남성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 소모품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바람 피워 낳은 아들이 법률혼의 아내와 딸들에 앞선 호주승계순서를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의 법이 '아들 낳아 대 잇기'를 법률혼 가족간의 가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안 '개인부' 통과돼야**

국가가 국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각종 권리와 의무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행정문서는 가족을 단위로 만들 필요는 없다. 여러 사람을 한 단위로 묶어놓으면 행정상으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낯설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인부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부기함으로 씨 개인중심으로 만든 가족부라는 일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이것마저 반대를 하고 나선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채택된 법무부 안 이 다소 보수성을 띠고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가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할 뿐이지만 국회 법사위 의원들 중에 다수가 보수적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무소신에다가 낯뜨막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집적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서로 존중하며 '화합의 꽃' 피워야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대학생들의 화합과 우정의 잔치이다. 게다가 북측 선수단의 참여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민족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 깊은 대회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이런 축제의 한마당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수구세력들이 "김정일 타도하여 북한주민 구출하자",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 동포가 산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북측 기자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우선 누구의 잘못을 떠나 모처럼 스포츠를 통해 조성된 남북간 화합의 장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성숙하지 못한 시위로 인해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대회를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가진 시위는 모처럼 화합의 분위기를 이뤘다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음이 명백하다.

더 이상은 불미스러운 충돌과 감정대립은 자제해야 하며, 그로 인해 민족화합의 한마당에 금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학생은 평화와 화합을 기초로 통일을 만들어 갈 세대이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남과 북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화합을 꽃피워야 한다. 이번 대회는 남북 대학생들이 스스로 민족통일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념 속에 갇혀버린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말이다. 최원석(사법대 역교3)

일상 속에서 가치를 찾자

어느 날 난 책장에서 책 한권을 집어 들었다. 보통 책보다 작아서 눈에 들어왔던 걸까. 내 한 손 크기 정도의 이 책은 나에게 큰 무언가를 주었다.

우리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무시코 넘겨왔던 사실들이 이 책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보통 "그거 너무 썰렁하다"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말 한마디로 냉랭했던 분위기가 수습되면서 그 사람에게서 최대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항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는가. 이런 비유를 해보려고 한다. 책은 작은 손거울이다. 작지만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분명히 항상 내 곁에, 멀리 않은 곳에서 나와 함께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사소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눈을 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힘이 들어서 무시코 지나쳐버리던 그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다가왔을 때, 당신은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작은 손거울을 통해 또 다른 곳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예나(문과대 어문학부1)

'자살' 어리석은 비상구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바로 '자살' 소식 때문이다. 하루에 한번 꼴로 자살 이야기가 듣는 것 같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한 어머니와 아이들의 동반자살이야기가 떠오른다. 어제도 어느 40대 남자가 딸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고 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총수마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성적비관, 카드 빚 등에서부터 단순 분노에 이르기까지 그 사연도 다양하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실 때 제자들 중 일부가 열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경전을 보면 '미가란디까'라는 승려가 60명이나 되는 승려의 목숨을 끊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처님께서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하신다.

자살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 아니고 또 법에도 맞맞는 것이 아니라고 공포하셨다. 자살 역시 살생계에 속하는 중죄

라는 이야기다. 불교에서는 갈애(渴愛)가 모든 형태의 괴로움과 존재의 윤회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갈애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격렬한 탐욕을 일컫는 말이다. 갈애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욕애(慾愛), 유애(有愛), 비유애(非有愛)가 그것이다. 이 중 세번째인 비유애가 바로 죽고싶은 욕망을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살고싶은 욕망, 삶에만 강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의 욕망 역시 격렬하다는 것이다.

자살은 결코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어쩔 수 없는, 누가 보아도 딱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자살은 번뇌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자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고통을 잠시나마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살을 현실에 대한 영연한 도피처로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강건욱(불교대 인철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이번호부터 만평·만화작가가 성명(미술03층)에서 지명(불교미술3)로 바뀝니다.

2003. 9월 1일

- 장미애 - substory@hanmail.net

학교는...

속이는...

나는?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초점없이 다소 산만 시의적절한 르포 인상적**

개강호 동대신문은 새 학기 소식과 기획, 특집기사 등으로 초점없이 다소 산만했다.

알맹이 없는 '초점'이 된 1면의 건학 100주년 D-1천원 기념행사 기사는 대부분 행사소식을 나열하며 건학 100주년 기념의 당위성만을 전달했다. 다행히 '학내 3주제의 구체적인 의제설정' 등 건학 100주년을 준비해야 할 동국인의 노력을 촉구한 사실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

3면 한총련의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해설기사는 주류 언론과는 달리 시위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했으며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하여 냉정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1면과 4면의 '8.15기념 금강산 평화 캠프' 동행 취재 기사와 4면 '한반도 위기 언론보도 토론회'에 대한 기사는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관련해 대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민족의 중대한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감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2면의 상반기 학생자치기구의 감사결과 기사는 감사결과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학우들의 이해와 직결된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해 비판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불교병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학교측에 촉구하는 '메아리'의 서릿발이 제일 뒷면에 있는 것은 안타까웠다.

문화면의 '황학동 도깨비 시장'에 대한 기사는 청계천 복원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황학동 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일깨우고 개발로부터 소외된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참신한 기획이었다.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황학동 시장의 문화적 가치 보존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통철(문과대 독문3)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필수야! 좀 늦었지만 단풍연 의장된 것 축하해!!  
 -니 친구  
 △성현이 형! 생일 축하해요.  
 -현수가  
 △경영학과 99학번 김소나 양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우준님. 대학원 입학 감축드립니다.  
 -조직원 지내울림  
 △아간강과 정보통신공학과 학우 여러분, 개강을 축하합니다!  
 -정장  
 △김근하, 생일 축하해! 난 꼭 좋은 남자 만날거야  
 △경영대 03 들풀 3기 이영숙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영환아, 효진아! 9월4일 100일 축하해!!

열심히 합시다

△동국 팔마모니 오케스트라 OPUS 11월 연주회 준비 열심히! 파이팅!  
 -Levi's 모델  
 △사과대 1반, 9월2일 반모임 잘 하자.  
 △AD Rush 전시회·공모전 준비 열심히 합시다.  
 -03

△지면야, 이번학기에는 꼭 졸업하자!  
 -합창단 7학년들  
 △사회과학부 학부생 여러분 2학기 열심히 합시다.  
 △동약리그가 다시 시작 됐습니다. 로드러너스 화이팅! 다른 팀들도 화이팅하세요  
 -Sinan  
 △한반도 문제 연구회 '동국관' 2학기 열심히 해봅시다.  
 -지난날의 죄를 반성하는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현아, 소호야! 씨제 만드느라 수고했다.  
 △슬, 윈! 수고했다.  
 △8월 24일 일어일문학과 학회실 이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범청학련 16기 통산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그리고...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배탈나지 않게 음식은 적당히 먹읍시다.  
 △가리아~ 군대 잘 갔다 와라. -진  
 △여수 다녀오면서 갖가지 사오는 거 있지만, △민지야~ 학교 좀 와라! 보고 싶다. -K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1)	소고기담양탕 (1500) 탕수육 (1500) 갈비경단 (1500)	짬뽕국밥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족집 (1500)	황태떡볶이 (3200) 불낙볶음 (3500)
화 (9/2)	참치찌개 (1300) 닭도리탕 (1800) 비빔밥 (1500)	떡갈치찌개 (1500) 주꾸미볶음 (1800) 돈간장 (1500)	소고기국밥 (3200) 꽃게간장 (3500)
수 (9/3)	꼬치어묵우동 (1500) 김치볶음밥 (1500) 열순살돈가스 (1500)	제육볶음백반 (1500) 간짜장 (1500) 북어숙여찌개 (1500)	대구지리 (3200) 삼겹살김치볶음 (3200)
목 (9/4)	햄숙어찌개 (1500) 제육쌈밥 (2000) 궁중떡볶이 (1500)	영양갈비탕 (2000) 집짜장 (1500) 오징어김치볶음 (1500)	닭김치탕 (3200) 고등어우조림 (3200)
금 (9/5)	육개장 (1500) 소고기해리라이스 (1500) 리조기 (1500)	돈육두부찌개 (1300) 치킨샐러드 (1500) 미소스볶음밥 (1500)	오징어찌개 (3000) 비빔밥 (3000)

**■ 금주의 추천메뉴 ■**

**치킨샐러드** (상록원 금요일 중식)

치킨의 바삭함과 신선한 야채의 싱그러움을 함께 맛 볼 수 있는 음식. 같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일품 치킨과 바글도마토, 양파, 상추, 오이 등을 더해 야채와 채소의 풋풋함이 전해져 온다. 환절기에 떨어진 식욕을 북돋워 주기에 좋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 폐지 논란

# 정책만 있고 대책은 없나

## 2004년부터 이자수익금으로 운영 ... 대책 미비해 문화계 위축 우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티켓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봤을법한 '문예진흥기금 475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행사 및 사적지 입장료 부과금, 정부출연금,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문화예술분야 공적 재원 중 하나다.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준조세의 형태를 지니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1973년 시작됐으며 조성된 기금은 상업적 성격이 약한 문학, 미술,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에 지원됐다.

그런데 이러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세무 중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에 따르면,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비가 국고지원체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계에 더 많은 지원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문화계는 "마음만 앞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문화예술활동에 하는 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하다.

한편 '현행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2%, '모금방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모금 자체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43.6%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전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시된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금리 추세에 맞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국고가 추가로 문예진흥사업비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매년 500억원씩 향후 5년 동안 문예진흥사업비 예상부족분 2천 500억원을 국고지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둬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에 근거한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가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영화관람료 475원을 내리거나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영화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즉, 정부의 정책변화로 이득을 얻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극장과 영화 투자·배급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예진흥원 총괄협력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금부족·경륜 등 국가 수익사업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그렇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현 모금 비율은 영화관람료의 11%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CNC에 내놓는 프랑스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조성 체제를 통해 거대 자본가들에게 외면당한 비주류 장르에 대한 고른 지원을 한 것, 이로써 얻어진 문화 다양화는 그에 비해 훨씬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후반부터 연이은 영화 흥행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자생력을 갖게 된 문화예술분야. 그러나 지속적인 뒷받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육성·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과는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그렇기에 준조세를 줄이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허울 좋은 조세제 변화를 위해 어렵게 뜬 문화기반의 물꼬를 막아버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은 분명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모금제 폐지

### 문화단신

#### 제5회 월경 페스티벌

오는 6일 여성문화기획단 '불턱'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주최로 연세대 노전극장에서 '제5회 월경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내가 모르는 내 몸의 주인 찾기'라는 슬로건 아래 월경이나 여성의 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눈 여겨 볼만한 행사로는 자궁의 느낌을 표현하는 해나 그리기, 생리대에 하고 싶은 말 써서 빨랫줄에 걸기, 극단 목욕의 퍼포먼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행사의 한 관계자는 "여대생들만 참여하던 초기와 달리 남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상벌에 관계없는 열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감추어야 할 것으로만 인식돼 오던 여성의 월경, 성에 관한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0505-966-0906

## 모두에게 열린 '소외된 자'들의 축제

### '프린지 페스티벌' 오는 7일까지 진행 ... 실험극·미술전 등 볼거리 풍성



그동안 구경할 수 없는 물건들이 한창기간 문을 여는 백화점에서 한꺼번에 판매된다면 어떨까. 예술진흥극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독립영화,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실험극 등의 비주류 문화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는 오는 7일까지 홍익대 주변에서 아시아 차세대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인

'2003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프린지'는 주변부 공연을 뜻하는 말로 소위 비주류를 지칭하며 보통 프린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술적 기준에 따른 심사나 선정과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립예술계의 맥을 이어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한 이번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체 행사를 △고성방가=인디 음악축제 △내부공사=미술전 시축제 △암중모색=아시아 독립영화축제 △이구동성=무대예술제 △중구난방=거리 페스티벌의 5개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총 190여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해 홍익대 부근의 소극장, 갤러리, 야외무대 등 20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일본의 '모노크롬 서커스' 공연의 경우 관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배달공연'을 시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행사를 주최한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 이선숙 홍보팀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비주류 문화행사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일부터 5일간은 일본의 유명한 극단체인 청년단이 '조용한 연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즘을 통한 실험극의 묘미를, 미즈모 아부라가 신체를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섬세하게 표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독립영화, 실험극, 거리 미술전 등을 포함한 '문화 종합 화점' 프린지 페스티벌. 이번 행사는 관객들이 여러가지 물건을 한군데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구경하기 힘들었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주에는 홍익대 부근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동안 흔히 접하지 못했던 비주류 문화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도서 - 들뢰즈의 책에서 떠올린  
진전사태의 아늑함



박인성  
블로그학과 교수

누구나 책을 만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큰 감동을 받은 책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나 싶게 잊어버리고 만다. 아마도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성숙해시킬 것이다. 나에게도 큰 감동을 받았지만 잊고 만 책들이 꽤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세계' 같은 책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자의든 타의든 만난 책이고 감동을 받은 책들이다. 지금 받는 감동에 못 미처서일까, 그때 받은 감동의 깊이를 잊고 말았다. 그후에도 감동을 받은 책들을 꽤 만났지만 솔직히 나는 왜 내가 그토록 감동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이번 여름방학 때 만난 책이다. 큰 감동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미 만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감동이 줄어들리라. 어쨌든 큰 감동을 받아서 일가. 이번 방학 이 책이 이끄는 대로 느끼면서 절을 찾아다녔다. 무엇보다도 진전사태의 탐에서 나는 들뢰즈를 강렬하게 느꼈다. 단아함을 느꼈고 그 단아함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힘을 느꼈다.

한적한 산 한 구석에 자리잡은 절터. 적막감과 한량함마저 느끼는 곳에 자리잡아서 그런지 절터의 탐은 더욱 힘 있게 다가온다. 숲길을 걸을 때마다 느꼈지만 그때마다 잘 갖추고 있는 절보다 무언가 비어 있는 절터가 더 절실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에 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한적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탐은 그 빈 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이래서 빈 절터의 탐은 더 위대하다. 진전사태의 탐이 바로 그러한 탐이다.

나는 오륙년 전 서산 마애불을 보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원사터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보원사터가 열릴 때의 그 느낌이! 보원사터는 보원(普願)이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모든 것들 그대가로 원(願)이라는 것을 고요히 외치고 있었다. 그 아늑함의 깊이를 나는 아직껏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강원도 진전사태의 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일까, 진전사태의 탐은 들뢰즈의 긍정을 담고 있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들뢰즈의 자살은 그의 철학만큼이나 의미미쳤지만 만약 그가 한반도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자기의 철학이 실현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살아 있지 않았을까.

**\* 초대합니다 \***

### 제6회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송편 빚기를 익히며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쁜 송편을 빚은 학생에게는 시상의 기쁨까지.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나누면서 보람있고 뜻깊은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시간	순서
10:00 ~ 10:10	인사말 · 행사진행안내
10:10 ~ 10:30	추석의 의미 · 떡에 관한 설명 및 시연
10:30 ~ 15:30	유학생과 함께 송편빚기
15:30 ~ 16:00	예쁜 송편 시상 · 송편전달

\* 시상내역 : 으뜸상, 버금상, 아차상, 끈기상

일시 : 2003. 9. 8(월) 10:00 ~ 16:00  
장소 : 계산관 앞마당(사범대 옆)  
주최 : 여학생실(☎ 2260-3058)  
후원 : 참사랑봉사단

###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 ◆ 강사 : 선재스님(사찰음식연구원,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 ◆ 교육기간 : 9월 17일 ~ 11월 26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 ◆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 ◆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 접수 : 9월 1일(월) ~ 3일(수) 여학생실(계산관 1층)
- ◆ 문의 : 여학생실 ☎ 2260-3058 gender@dongguk.edu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매체비평

게임 편

동전쌍기

“아날로그적 단순함 앞세워 디지털 시장에서 흥행”



모바일 원버튼 게임 '동전쌍기'.

핸드폰의 사용 용도를 말하려면 으름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성능 외에도 점점 진화하는 핸드폰을 보면 곧 다가올 모바일 세상에 흐뭇해지곤 한다. 100% 만족은 못할는지 모르지만 핸드폰

으로 TV와 음악을 듣고, 심심할 때 오락을 하기도 하며 낯선 곳에서 모르는 길의 지도정보를 알려주는 등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버린 핸드폰은 더 이상 전화기라고 불리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있는 핸드폰만큼이나 핸드폰 속 게임도 점점 화려하고 복잡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 시뮬레이션, RPG, 슈팅게임 등 아마 연말이 되면 3D 모바일 게임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그래픽, 방대한 세계관 등으로 무장하고 나온 게임들에 열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처럼 단순 무식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 디지털세상이 험난하기만 할 뿐이다. 그래도 간간히 버튼 하나로만 즐길 수 있

는 원버튼 게임이 나오는 걸 보면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도 단순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올해 나온 원버튼 게임들 중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로봇찌빠액션점프'와 '동전쌍기'다. 두가지 게임 모두 버튼 하나로만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원버튼 게임이다. 누구처럼 단순한 머리를 가진이에게 적합한 게임이다. 먼저 '로봇찌빠액션점프'는 '개병이' '한심이' 등과 동시대를 풍미했던 명랑 만화의 대표적 캐릭터로 점프를 하여 계속해서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게임이고 '동전쌍기'는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동전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임이다. 원버튼 게임이 늘 그렇듯이 두 게임 모두 타이밍

과 기록을 재미요소로 갖고 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공든 동전이 떨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등은 층이 올라갈수록 동전이 쌓여갈수록 그 재미는 배가된다 하겠다. 두 게임 모두 재미있는 게임이다. 극약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두 게임은 비슷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로봇찌빠액션점프'는 '저주받은 걸작'이 되버렸고 '동전쌍기'는 화려한 개봉과 함께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저주받은 걸작이 그렇듯이 더욱 많은 재미요소를 갖고 있다. 무한모드, 미션모드, 스토리 모드 등 개발자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무한모드 하나만으로 구성된 '동전쌍기'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람

을 받았다. 화려하고 방대한 게임을 표방하는 게임이라면 구성도 복잡해야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단순함으로 다가서는 게임이라면 그 구성도 극히 단순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서도 통한 것이다. 실제로 고스톱게임에서 변형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고 스토리에 맞추어 고스톱을 하게되는 설정을 가진 게임들은 모두 사장되거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단순한 게임인 원버튼 게임은 스토리나 미션 등에 상관없이 세밀한 레벨과 타이밍의 게임을 원한다는 것이다. 원버튼 게임을 즐기는 우리들의 머리를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도균 게임평론가

# 누드, 빨간 옷 벗고 대중 속으로

가수 이상민과 이혜영이 해외에 나가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인 누드를 찍고 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현아, 권민중, 김완선 등 최근에 누드를 찍었던 많은 연예인들이 가 법계 인터뷰만 했던 것과 비추어 보면, 튀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신한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사진을 공개한 한 미술교사의 의미 있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사회의 왜곡된 누드열풍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 '아쉬운' 시작

80%이상이 완전 노출이라는 수위 높은 누드를 들고 와서 "중학생 조카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누드"이며, "예술과 의설, 그 두 마리물다 잡고 싶었다"는 매끈한 이야기를 해대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적 대박을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제스처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들의 누드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선 어김없이 선결제가 우선이니까 말이다. 몸값으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이 너나 없이 누드를 찍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의 우리사회는 누드가 돈이 되는 사회이고, 색

슈엘리티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일까. 이제 누드 열풍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옷을 벗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우리사회에는 각각의 이유로 옷을 벗고, 그 벗은 몸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개인과 집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돈을 받고 팔 것도 아닌 누드 사진을 돈을 들여 찍기도 하고, 셀프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 단연, 디지털카메라의 보급과 인터넷의 보급이 결정적인 매개물이 되었다.

## 왜 벗는가

이들은 왜 벗는 것일까. 몇가지 유형을 보자. 첫째, 나체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이 있다. 한 나체주의 인터넷 카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까페 때문에 걸려있다. "있는 그대로, 모두가 구속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환경에 대한 조화를 이루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페 자료실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똥똥하거나, 가슴이 처진 사람, 몸에 폼플레이스가 심하게 도

드러져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사회의 나체주의란 것이 젊음과 생기 발랄함,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외국의 나체주의 클럽엔 다양한 나이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땐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다가사진을 모아 두는 한 인터넷 갤러리는 누드갤러리가 따로 있다. 여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과 아내, 혹은 여자친구의 몸을 찍은 사진을 주로 올려놓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리플'을 바란다. 올려진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일상에서는 평범하게 입고 지내지만,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벗은 몸을 한번쯤은 민인에게 공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인간이란 무릇, 노출과 관음의 양극단을 동시에 오가는 동물임을 실감하게 한다. 이곳에서도 대체로 군살 없는 몸과 근육이 등장한다. 젊음과 생기발랄함,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는 단연, 돈을 목적으로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다. 포르노그래피가 그러하고, 일부 연예인들의 누드촬영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나신을 공개하려는 두 번 째 유형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왜곡된 사회 문화가 여성, 혹은 남성의 매끈하고 잘빠진 몸을 선호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누드열풍은 다소 염려스럽다.

## 양지로 나오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더위 앞에서도 몸을 뽐뽐 싸매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맨발이나 맨몸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면서도, 뒤로는 끊임없이 음탕함과 음란함을 즐겼던 이중성을 벗어나 몸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누드도 얼마든지 양지에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누드열풍을 색안경을 쓰고만 볼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김종민 대학문화연구소 소장

## 사진작가 이해숙 씨를 만나

# “누드는 이제 젊은이들의 차별화된 자기표현 수단”



사진작가 이해숙 씨.

누드에 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자신의 누드를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의 누드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있는 사진작가 이해숙 씨를 만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 누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 과거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젊은 시절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누드사진을 찍으러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성별

에 상관없이 자신의 누드사진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러 온다.

- 일반인들이 누드를 찍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 많은 매체에서 연예인들의 누드 관련 기사를 다룬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누드를 자기 표현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남들과는 무언가 차별화 된 사진을 소장한다는 점도 누드사진의 매력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이러한 누드열풍에 대한 의견은.  
= 체격이 좋은 50대의 일본인 아주머니가 누드를 찍으러 왔을 때, 문화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몸을 사진에 담아 소장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프로파일 사진을 찍는 것처럼 돼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누드 열풍 역시 문화가 그만큼 개방화되었다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사실 누드는 감춰야할 부분이 아니다. 그동안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누드를 금기시 해왔지만, 이제 누드 또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은>

bob83@dongguk.edu

## 매체에 비친 누드

### 모바일·인터넷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다뤄지는 누드는 대부분 '포르노'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은 유명 연예인들의 누드사진 유포 통로가 되면서 요즘 불고 있는 누드열풍을 선도하기도 했다. 인터넷 역시 누드라는 단어가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는 개념과 동일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포르노를 다루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다른 성격을 가진 커뮤니티도 눈에 띈다. '건전한 누드 문화를 만들자'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문을 연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그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누드를 찍어 게시판에 올리고 회원들과 누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의 회원들. 일본 등에는 활성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보면 독특하기만한 이들의 모습은 누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 영화·연극

과거 영화나 연극 속 누드는 단순히 성적 표현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누드가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주인공 12명과 813명의 단역배우들이 올 누드로 출연하여 화제가 된 영화 '마고'는 태초의 세계를 나타내고 그 시대의 인간원형을 드러내기 위해 누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외설논쟁을 벌이며 법적 공방까지 갔던 성인 연극 '미란다' 역시 누드를 메시지 전달을 위한 중요한 매개로 이용해 화제가 됐다. 이제 영화나 연극 속에서의 누드는 자연미의 표현,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미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메아리

### 해임추진 이벤트

▲A와 B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A는 얼굴이 깨끗하고, B의 얼굴은 깨끗했다. 과연 누가 세수를 하러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정답'이 등장한다. 먼저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A가 정답이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각자 자신의 얼굴도 같은 상태일거라' 생각한다면 B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총연 스트라이커부대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좀 봐 준 정도다. 처음에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송광수 검찰총장·최기문 경찰청장의 해임·문재인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함께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말 대학생 12명이 미군 장갑차 위에 오른 것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자르려고' 결심한 것일까. 신중할 판단을 위해 잠시 옛 일을 감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공산당도 허용될 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며칠 후 한나라당은 해임추진 대신 '대

통령 국기문란 발언대책위'라는 기구를 만드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결국 꼬투리를 잡아 '해임추진 이벤트'를 만든 뒤 정부와 여당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굴뚝 청소부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다. 두 제자의 대답을 들은 랍비는 말한다. '둘이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다면 한 사람의 얼굴만 더러울 리가 없다'고. 똑같이 나라 일을 책임졌다면 한 쪽만

묵묵과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한국사회가 얼마나 더러운 굴뚝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국정운영자인 야당도 책임을 같이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 계속 한 쪽만 탓하며 물고 늘어진다면 '사실은 청소 안하고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될까. 송승경 사회부장 itsu@dongguk.edu